

PGA 투어 '11일 재개' 세계 '톱5' 출동...임성재도 출전

찰스 슈와브 챌린지 열려...디펜딩챔프 케빈 나 2연패 도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마침내 재개된다. 3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대회에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출전할 예정이다.

PGA 투어는 1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찰스 슈와브 챌린지에 세계랭킹 20위 내 선수 15명이 출전한다"고 밝혔다.

PGA 투어는 3월 중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라운드를 마친 뒤 코로나19 여파로 시즌이 전격 중단됐다.

투어는 오는 11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

스의 콜로니얼 CC에서 열리는 찰스 슈와브 챌린지(총상금 750만달러)로 시즌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 대회에는 세계 랭킹 1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를 비롯해 2위 온 램(스페인), 3위 브룩스 켈퍼, 4위 저스틴 토머스, 5위 더스틴 존슨(이상 미국) 등 '톱5'가 총출동한다.

PGA 투어는 "이 대회에 세계 5위 이내 선수들이 모두 출전하는 것은 1986년 이후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시즌 PGA 투어 페덱스컵 랭킹 1위인 임성재(22·CJ대한통운)와 지

난해 우승자인 케빈 내(미국)도 출전한다. 임성재는 현재 세계랭킹 23위, 케빈 내는 30위에 자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번 대회에는 페덱스컵 상위 20명 중 17명이 출전할 예정이다.

조던 스피스, 필 미켈슨(미국),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등 스타 플레이어들이 PGA 투어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롭 후드 찰스 슈와브 토너먼트 회장은 "팬들은 골프에 배가 고프다"며 "전 세계가 대회가 열리는 텍사스를 주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PGA 투어는 당분간 코로나19 추이를 살펴보고 결사 없이 대회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ESPN "ML, 일부 구단주 올시즌 포기 의사"

구단들, 급여비용 절감 시즌 포기 가능성

메이저리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막이 연기된 가운데 일부 구단에서 재정 위기를 이유로 시즌 포기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저리거 노사가 임금 삭감안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시즌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1일(한국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급여 비용과 손실을 줄이기 위해 2020시즌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메이저리거 구단주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로 출발이 연기된 메이저리거는 오는 7월 개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

초 162경기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82경기 체제가 유력하다.

당초 메이저리거 사무국과 노조는 5월 까지 선수단 연봉을 선지급하고, 개막 후에 경기 숫자에 비례해 연봉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리그가 재개되더라도 무관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봉 지급을 놓고 구단과 선수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고연봉 선수의 임금이 최대 75%가 삭감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뛰는 류현진(올해 연봉 2000만달러·약 246억)의 경우 515

만달러(약 63억원) 밖에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처럼 메이저리거 사무국과 선수 노조 사이에 의견을 일치시키기 쉽지 않은 상태다.

7월 재개를 위해선 적어도 6월 초까지는 노사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상황을 속단하기 어렵다.

ESPN은 "구단주와 선수들이 어떤 형태로든 개막을 위한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야구는 팬들에게 경멸을 받게 되고, 북미 스포츠에서 혐오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ESPN의 보도대로 일부 구단에서 올 시즌 운영을 포기한다면 리그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軍훈련 마친 손흥민 더 배고파졌을 것"

프리미어리그 출신 대니 밀스 "시즌 재개되면 힘차게 뛸 것"

현역 시릴 리즈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 등에서 뛰며 프리미어리그만 320경기 이상 소화했던 대니 밀스가 토트넘의 손흥민을 조명했다. 경기에 뛰는 것에 굶주려 있을 손흥민의 '달라진 동기부여'에 주목했다.

밀스는 1일(이하 한국시간) '풋볼 인사이드'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더 배고파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풋볼 인사이드는 우선 "토트넘의 위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 대유행 기간 동안 국에서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쳤고 이달 초 런던으로 돌아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는 6월18일 EPL이 재개되면 손흥민은 헤리 케인, 무사 시소코 등과 함께 선발라인업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 선수 모두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었는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충분히 몸 상태를 회복한 상태다.

밀스는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다. 아주 뛰어나다"면서 "내 생각에, 국방의 의무를 마친 그는 더 배가 고파졌을 것이다. 매일매일 다시 축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행복하게 느낄 것"이라며 돌아온



일상이 손흥민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밀스는 "손흥민이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시즌이 재개되면, 힘차게 뛰어다닐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손흥민은 지난 2월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2019-2020시즌 총 31경기에 출전해 16골9도움을 기록 중이다. 역대급 페이스를 보이다 부상으로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는데, 코로나19로 리그가 중단된 덕분에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리그가 중단되기 전까지 토트넘은 승점 41점으로 8위에 그쳤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주어지는 4위 첼시(승점 48)와의 격차는 7점까지 벌어졌다. 매체는 "토트넘이 다음 시즌 UCL에 나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9경기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밀스는 다가오는 여름 이적시장에서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이탈'이라고 짚었다. 그는 "경험이 풍부한 수비수 안 베르통인과 토비 알더베일트가 올여름 떠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최근 조제 모리뉴 감독이 스카이스포츠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염증하게 받아들이며 대규모 투자를 자제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과 맞물린 예측이다.

밀리는 "스파스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를 잃느냐다. 이미 에릭센이 그러했던(인터미탈로 이적) 것처럼 베르통이나 알더베일트가 떠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농구황제' 조던, 경찰 과잉진압 규탄시위 지지

"몹시 슬프고, 명백히 화 나"

NBA 슈퍼스타 마이클 조던(전 시카고 불스)이 31일(현지시간) 경찰의 과잉 제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거리로 나선 시위대에게 지지 의사를 밝혔다.

선수 시절이나 그 이후에도 정치적 의사 표현을 삼갔던 조던은 이날 자신이 구단주

를 맡고 있는 샬럿 호니츠 및 자신의 브랜드 계정을 통해 플로이드의 죽음과 관련해 "나는 몹시 슬프고, 정말로 고통스럽고, 명백하게 화가 나 있다"고 밝혔다.

조던은 "우리는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연민과 공감을 표해야 하며, 분별없는 잔인함에 등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불의에 대해 평화적 표현을 계속하고, 책임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시위대를 격려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이 "모두를 위한 정의를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의 법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엔 우리의 통일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투표를 통해 체계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던 이외에도 여러 NBA 구단들도 플로이드의 죽음과 관련해 입장을 냈다. LA 레이커스는 30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편협성, 폭력, 편견을 비난한다"고 말했다.



임성재

기성용의 마요르카, 바르샤와 재개 첫 경기

12일부터 라리가 새 출발 7월19일까지 '강행군'

스페인 프리메리리가가 2019-2020시즌 재개 스케줄을 확정했다. 한국시간으로 12일 세비야와 레알 베티스의 '세비야 데비'로 다시 시작한다.

라리가 사무국은 1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2019-2020시즌 재개 일정을 발표했다. 일단 28-29라운드 2개 라운드 일정부터 확정해 알렸다.

일종의 재개막전 같은 경기는 12일 오전 5시 펼쳐지는 세비야와 레알 베티스의 '세비야 데비'다. 이강인이 속한 발렌시아는 13일 오전 5시 레반테와의 경기로 리그를 다시 시작하며 하루 뒤인 14일 오전 5시에는 기성용 그리고 일본인 구부의 소속팀인 마요르카가 리그 선두 바르셀로나와 맞대결을 펼친다.

라리가는 현재 11라운드를 남겨 놓은 상태다. 라리가 사무국은 오는 7월19일까지는 2019-2020 시즌을 마치기를 원하고 있다. 스페인 아스는 "6월11일 재개해 39일 동안 쉬지 않고 총 110경기를 소화해야한

TEMPORADA 2019-20			
JORNADA 28			
11-14 Junio			
11/6 - 22:00 CEST	13/6 - 19:30 CEST	13/6 - 19:30 CEST	14/6 - 13:00 CEST
12/6 - 22:00 CEST	13/6 - 13:00 CEST	13/6 - 19:30 CEST	14/6 - 13:00 CEST
13/6 - 19:30 CEST	13/6 - 19:30 CEST	14/6 - 13:00 CEST	14/6 - 13:00 CEST
13/6 - 22:00 CEST	14/6 - 13:00 CEST	14/6 - 13:00 CEST	14/6 - 13:00 CEST
14/6 - 19:30 CEST	14/6 - 22:00 CEST	14/6 - 13:00 CEST	14/6 - 13:00 CEST

다"며 강행군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29라운드는 16일부터 출발한다. 시차 때문에 한국 팬들이 체감하는 날짜 간극이 일정치는 않으나 대략 사흘에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 빡빡한 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리그를 끝내야한다 게 라리가 사무국의 복안이다.

앞서 하비에르 테바스 라리가 회장은 "중요한 것은 (재개 시점이 아니라)시즌이 끝나는 시점이 될 것"이라면서 "다음 시즌이 시작될 때만 축하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출발보다는 무사히 끝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